

본 자료는 2007.6.18(월) 14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268회 국회(임시회)

財政經濟委員會

# 懸 案 報 告

2007. 6. 18(月)

財 政 經 濟 部

# - 目 次 -

## I. 最近 經濟動向 / 1

1. 세계경제 동향 / 1
2. 국내경제 동향 / 2

## II. 主要 懸案 / 4

1. 유가동향 및 대응방향 / 4
2.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/ 7
3. 한·미 FTA 추진현황/ 8
4.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 활성화 / 11
5. 외환시장의 안정 / 13
6.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/ 14
7.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추진 / 15
8. 지역특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/ 16

# I. 最近 經濟動向

## 1. 세계경제 동향

◇ 일본·유로·중국 등을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 흐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나, 미국의 경기 둔화 폭 확대 등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방위험요인\*은 상존

\* 중국의 추가 긴축조치 가능성, 국제유가 재상승, 세계적 과잉 유동성 등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우려 등

□ (미국) 주택부문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, 산업생산, 민간 소비 등 실물지표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

\* 성장률(년율,%) : (06.2/4)2.6→(3/4)2.0→(4/4)2.5→(07.1/4)0.6

\* 실질개인소비지출(전기비,%) : (06.2/4)2.6→(3/4)2.8→(4/4)4.2→(07.1/4)4.4

\* 산업생산(전기비,%) : (06.2/4)6.5→(3/4)4.0→(4/4)△1.5→(07.1/4)0.9

\* 신규주택판매(전기비,%) : (06.3/4)△8.4→(4/4)△0.8→(07.1/4)△12.4

□ (중국) 계속되는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, 수출 호조 및 민간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10%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세를 지속

\* 성장률(전년동기비, %) : (06.2/4)11.3→(3/4)10.4→(4/4)10.4→(07.1/4)11.1

\* 수출(전년동기비, %) : (06.2/4)24.1→(3/4)28.7→(4/4)29.1→(07.1/4)27.8

\* 소매판매(전년동기비, %) : (06.2/4)13.9→(3/4)13.8→(4/4)14.3→(07.1/4)14.9

□ (일본 및 유로지역) 활발한 기업투자 및 고용시장 안정에 의한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

\* 일본 성장률(전기비,%) : (06.2/4)0.3→(3/4)0.1→(4/4)1.2→(07.1/4)0.8

\* 유로 성장률(전기비,%) : (06.2/4)1.0→(3/4)0.5→(4/4)0.9→(07.1/4)0.6

## 2. 국내경제 동향

◇ 최근 국내경제는 경기판단지표가 아직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,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

- 투자리수 수출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, 소비·투자 등 내수지표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, 최근 산업생산도 회복세를 시현

\* 산업생산(전년동기비, %) : (06.2/4)11.5 → (3/4)11.3 → (4/4)5.2 → (07.1/4)3.3 → (4)6.7

- 다만, 유가 재상승, 미국 경기 둔화, 중국 긴축조치 등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방위험도 존재

### 【 내수 】

□ (민간소비) 견실한 실질소득 증가 등으로 금년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, 소비심리 지표도 완만하게 개선되는 추세

- 1/4분기중 작년 하반기(3.8%)에 비해 높은 4.1% 증가하였고, 전기비(1.5%)로도 GDP(0.9%)보다 높은 증가세

\* 4월 소비재 판매는 전년동기비 4.9% 증가하여 다소 주춤했으나(1/4분기 7.1%), 경기와 밀접한 내구재 소비는 15.2%의 높은 증가세 지속

□ (설비투자) 2005년 하반기 이후의 견조한 회복세가 지속되어 1/4분기에도 전년동기비 10.8%의 증가세를 시현

\* 신권발행에 따른 ATM 교체수요를 제외하더라도 10% 내외 증가세

\* 4월 설비투자추계도 전년동기비 15.6% 크게 증가(1/4분기 11.3%)

□ (건설투자) 2006년 4/4분기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이 이어져 1/4분기에 전년동기비 3.9% 증가

\* 4월 건설기성은 전년동기비 6.3% 증가(1/4분기 6.5%)

## 【 대외거래 】

- (수출) 환율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, 일본, 유로 등 해외 수요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두자리수 증가세를 지속

\* 수출(% 통관) : (06.1/4)10.6 (2/4)16.9 (3/4)16.3 (4/4)13.8 (07.1/4)14.6 (4)17.1 (5)11.9

- (수입) 최근 내수회복세, 유가 재상승 등으로 수출보다 다소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

\* 수입(% 통관) : (06.1/4)19.7 (2/4)20.4 (3/4)21.1 (4/4)13.0 (07.1/4)13.2 (4)19.8 (5)13.6

- (경상수지) 4월에 대외배당금 지급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소득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시현하면서 적자폭이 다소 확대

- 5월에는 무역수지 확대, 대외배당금 지급 감소 등으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

\* 경상수지(억불) : (06.1/4)△11.2 (2/4)6.9 (3/4)3.8 (4/4)61.4 (07.1/4)△16.6 (4)△19.3

## 【 고용 】

- (취업자) 최근 내수지표의 완만한 개선흐름을 반영하여 증가폭이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

- 금년 1~5월중 전년동기비 27만명 증가했으며, 특히 서비스업에서 30만명 중반대의 증가세를 시현

\* 취업자증가(전년동기비, 만명) : (07.1)25.8→(2)26.2→(3)27.3→(4)27.8→(5)27.4

## 【 물가 】

- (소비자 물가) 에너지 가격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동월비 2.3% 상승하여 안정세를 유지

\* 소비자물가(%) : (06.1/4)2.0 (2/4)2.3 (3/4)2.5 (4/4)2.2 (07.1/4)2.1 (4)2.5 (5)2.3

## II. 主要 懸案

### 1. 유가동향 및 대응방향

#### 가. 최근 유가동향 및 전망

- 최근 국제유가는 OPEC 감산 등에 따른 공급부진과 중국·인도 등 개도국의 수요증가 등에 따라 배럴당 60달러대 중반의 강세가 지속

(기간평균, 현물, \$/b)

	06년	07년	3월	4월	5월	6월
· Dubai	61.6	59.6	58.9	64.0	64.7	65.2
· Brent	65.1	62.5	62.3	67.6	67.4	71.0
· WTI	66.0	60.8	60.6	63.8	63.4	66.1

\* 6월은 6.15일까지의 평균가격

- 휘발유 등 국내석유제품은 원유가 상승과 국내가격결정에 연동되어 있는 국제제품가격 상승에 따라 동반 상승

	06.12월	'07.1월	2월	4월	5월	6월	변동율(%)	
							비전년말	비전월
-Dubai 유가(\$/b)	58.7	51.8	55.9	64.0	64.7	65.2	11.1	0.8
-국제 휘발유가(\$/b)	67.1	60.2	65.9	82.7	88.0	83.8	24.9	△4.8
-국내 휘발유가(원/리터)								
· 공장도가(세전)	485	482	477	580	607	613	26.4	1.0
· 공장도가(세후)	1,323	1,349	1,343	1,456	1,486	1,493	12.9	0.5
· 소비자	1,415	1,411	1,402	1,505	1,538	1,554	9.8	1.1

\* Dubai가격은 6.15일까지의 평균, 휘발유가격은 6월2주가격 기준

- 이러한 최근의 유가 상승세는 지정학적 불안과 美 휘발유 성수기(5월말~9월초) 수요증가 등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전망

	유종	06년	2007년					
			06.12월 전망	07.5월 전망				
				연간	1/4	2/4	3/4	4/4
CERA	Dubai	61.5	56.0	62.7	55.4	65.0	64.5	66.0
EIA	WTI	66.0	65.2	64.3	58.1	65.0	67.3	66.7
PIRA	Brent	65.1	63.7	63.0	57.8	68.4	64.8	61.0

<註> CERA : 美 캠프리지에너지研, EIA : 美 에너지정보청, PIRA : 석유산업연구소

## 나. 향후 대응방향

- ◇ 최근 유가상승이 지정학적 불안, 정제시설투자 부진 등 구조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
- ◇ 유류세 인하 등 단기대책보다는 시장원리로 대처해 나가면서 유통구조 개선 및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 등 근본적인 수급구조 개선을 추진할 필요

### □ 현행 유류세 체제는 유지(세부내용 : 붙임 참조)

- 국제가격 상승시 종량세 체계에 따른 완충효과\*와 최근 유가상승분을 시장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국제적인 대응 기조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유류세 체제를 유지할 필요

\* 기준가격인 싱가포르 시장 휘발유 국제가격이 '06년말 이후 26% 이상 상승한데 비해 국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9.8% 상승

### □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국내시장의 경쟁을 확대

-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가격 담합문제 등에 대한 공정거래 차원의 지속적인 점검\* 및 제품가격 투명화\*\*를 추진

\* '07.2월 공정위에서는 유가담합을 한 국내 4개 정유사를 고발하고 총 526억원의 과징금 부과

\*\* 산자부에서는 석유제품가격 투명화를 위하여 6월중 유가모니터링(산자부의 가격조사)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

-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(5%→3%, 7.1일 시행)를 통해 국내시장의 경쟁확대·가격안정을 유도

### □ 에너지 절약 및 해외자원확보를 통해 에너지 수급구조를 개선

- 신재생 에너지 개발·보급 강화, 해외자원개발 활성화, 산유국과의 협력증진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추진
- 근본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 전환되도록 노력

<붙임>

< 유류세 관련 >

① 최근 유류가격 상승은 모든 나라에 공통된 사항이며, 국제적으로도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

② 원화강세와 종량세 체계가 완충 역할을 하여 국내 유류 가격 상승폭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음

\* 휘발유 가격상승율(04.12~07.4월, %) : 미국(51.0), 캐나다(37.2), 스페인(18.6), 일본(4.0), 프랑스(19.3), 이태리(11.7), 영국(8.8), 독일(19.9), 한국(11.8)

③ 우리나라 유류 가격 및 세금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

\* OECD 회원국 중 휘발유 가격은 13위, 가격대비 세금비중은 14위

\*\* OECD 국가 중 휘발유 세금비중 비교(2006년 3분기, %)

구 분	프랑스	영국	독일	이태리	한 국	스페인	일 본	캐나다	미국
세금비중	67.3	64.7	63.1	62.9	57.7	55.5	40.9	29.5	12.9
순위	1	2	3	4	14	16	24	27	29

④ 우리나라의 석유소비량은 세계 7위('05년, 2308천B/일)이며 중대형 차량 구입도 소형차량에 비해 크게 증가

○ 에너지 효율지표인 에너지 원단위도 높은 수준

\* 승용차 신규판매 증가율(05년, %) : 경형(△0.2) 소형(△40.7) 중형(49.2) 대형(59.5)

\*\* 에너지 원단위(03년, TOE/1,000\$) : (한국) 0.35 (일본)0.11 (영국)0.15 (미국)0.22

⑤ 세금 인하시 세수는 크게 감소하는 반면, 주유소 가격 자율화와 대물세적 특성 등으로 인해 가격인하 효과는 불확실

\* 휘발유, 경유 등 유류세 10% 인하시 세수감소 : 1.9조원 수준

## 2.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

### □ 시장 동향

- 그간 하락세를 보이던 매매시장이 강남지역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으로 소폭의 상승세로 전환
- 다만, 신도시 발표 이후에도 기존 신도시 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갔으며, 동탄2지구 인근지역도 안정세를 보임

< 주간 아파트 매매시장 동향(6.11일 기준, 국민은행) >

구 분	'06년	'06년		'07년		5.21	5.28	6.4	6.11
		1/4분기	5월	1/4분기	5월				
전 국	11.6	1.9	1.2	1.4	-0.1	-0.03	-0.02	-0.01	0.01
수도권	20.3	2.8	2.2	2.4	-0.1	-0.03	-0.03	0.00	0.05
서울	18.9	3.9	2.0	2.2	-0.2	-0.01	-0.01	-0.04	0.02
강남권	22.7	5.6	2.8	1.2	-0.4	-0.01	-0.02	-0.05	0.04
화성	20.2	1.0	0.7	2.2	-0.2	-0.05	-0.01	0.04	-0.09

\* 기존 신도시 : 평촌(-0.10), 과천(-0.06), 분당(-0.05), 산본(-0.13)

- 그러나, 전반적인 매수세 위축으로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세적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

### □ 전망 및 대응방향

- 향후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, 주택공급 시차, 토지보상 자금에 따른 유동성 증가 등 시장불안요인이 상존
- 우선 旣 마련된 수요관리 대책(부동산 세제, 주택담보대출규제 등)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막연한 규제완화 기대를 불식
- 토지보상자금이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토보상제 도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(토지보상법)이 필요
-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 수급안정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택지마련에 주력

### 3. 한·미 FTA 추진현황

#### 가. 추가 협의 관련

##### □ 논의배경

- 5.10(워싱턴시각) 美 의회와 행정부간 신통상정책(New Trade Policy)에 대하여 합의 도출
  - 미측은 신통상정책 내용의 반영 없이는 한·미 FTA에 대한 의회 비준이 어렵다는 입장
  - \* 미 상원 Baucus 재무위원장 및 Bhatia USTR 부대표는 신통상정책 내용이 한미 FTA에 포함되지 않으면 미 의회 통과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언급
- 미 행정부는 의회와 신통상정책의 조문화(legal text) 작업을 완료하고, 6.16(한국시각) 우리측에 이를 공식적으로 전달
  - 미측 제안은 노동·환경·의약품·필수적안보·정부조달(노동관련)·항만안전·투자 등 7개 분야로 구성
  - 현행 한·미 FTA 협정문의 관련 내용을 수정, 추가 또는 삭제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음

##### □ 대응방향

- 현재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미측 제안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중에 있으며 향후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익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대응
- 다만,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는 협상 결과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나갈 것임

## 나. 국내 보완대책 마련

### □ 추진배경

- 한·미 FTA를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 시스템 선진화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

⇒ 직접적 피해보전 방안과 함께 시설현대화·규모화 및 농업바이오산업 육성 등 '산업별 경쟁력 강화' 방안을 마련

### □ 추진방향

- 농·수산업 소득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개편, 무역조정 지원 확대개편,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등 직접적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
- 농·수산업의 경우 유통시스템 구축 및 축사시설 현대화 등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과 함께, 종자·종묘산업 등 농업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추진하고
- 제조업·서비스업의 경우 조기개방품목에 대한 R&D지원 확충, RFID의 확산 등 산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

### □ 향후 추진일정

- '07년 6월말까지 국내보완대책 마련을 목표로 현재 이해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 중

## 다. 국회 비준동의 추진

### □ 논의배경

- 한미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비준동의가 이루어질 필요

### □ 추진방향

- 향후 추가협약의 관련 일정을 감안하여, 협정문 서명 이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
  - 협정의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동의와 함께 협정이행 등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

\* 현재까지 확인된 협정이행 관련 개정법률 : 23개

- 확대 개편된 「FTA 국내대책위원회」를 중심으로 국민적 지지에 바탕을 둔 한미FTA 국회 비준동의 추진
  - 이를 위해 협정문 내용,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 및 보완대책 관련 대국민 여론수렴 활동을 강화

### □ 향후 추진일정

- (협정서명 이전) 협정문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우려를 해소

\* 서명 전 국내절차 : 법제처 심사→차관회의→국무회의→대통령 재가

- (협정서명 이후) 상임위별 정보제공 등 국회 한미FTA 비준 여부 결정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

## 4. 성장잠재력 확충 및 투자 활성화

### 가. 기업환경개선

□ '06. 9월 선진국형 기업환경 구축을 목표로 「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」을 마련

○ 창업에서 퇴출까지 기업활동의 쏠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을 개선(10대 부문 115개 과제)

\* 주요내용

-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(설비투자의 10%)
- 장기 저가의 임대산업단지 공급(50년 임대, 임대료 평당 연5천원)
- 기업법제 선진화 추진(포괄적 동산담보제, 사전심사청구제(No Action Letter))

○ '07년 1/4분기 점검결과, 대부분의 과제가 정상 추진중 (단기과제의 경우 완료단계)

□ 지난해 1단계 대책에 이어 기업 투자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환경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중

\* 지난 3~4월중 정부, 지자체, 연구소, 기업, 일반국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했고, 수차례 T/F회의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

○ 투자, 입지, 인력, 환경분야를 비롯해 세제, 금융 등 광범위한 기업활동 분야에 대해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

\* (과제예시)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(1만㎡이하) 공장설립시 제한 합리화,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외투기업 공장 신·증설 허용기간 연장

⇒ '07. 6월말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여 확정할 예정

□ (분기별 이행실태 점검) 수립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

○ 중·장기 과제에 대해서도 세부 시행방안을 강구하여 개선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

## 나.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

- '06. 12월 수립한 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」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추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

< 주요 내용 (3대부문, 159개 과제) >

- ① (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, 64개 과제) 제조업과의 차별시정·인프라 구축, 세제·금융 지원,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개선 등
- ② (유망서비스업 육성방안) 디지털방송·모바일서비스 등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21개 업종의 발전방안 마련
- ③ (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의 경쟁력 강화, 74개 과제) 국내관광의 고비용구조 해소 및 고급화, 영어교육 혁신 및 외국유학생 유치확대 등

- 분기별로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,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

\* 1/4분기 실적점검결과 '07년 상반기 추진과제 54개중 29개 완료  
[총159개 과제 : ('07.상반기) 54개, ('07.하반기) 59개, (지속추진) 46개]

- 한·미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」 수립중(07.7월 발표예정)

- ① RFID 본격 확산지원 등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
- ② 방송·통신 등 시장개방 업종의 경쟁력강화 방안
- ③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위한 관광·레저 분야의 대책 등

## 5. 외환시장의 안정

### □ 최근동향

- 최근 수년간 원화환율은 경상·자본수지 동시 흑자\* 등의 이유로 달러대비 큰 폭 절상되었으나,

\*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출호조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인

- 금년 들어 해외투자활성화·경상수지 축소 등으로 대체적으로 930원대에서 등락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

\* 원/달러 : (03말)1,193 → (04말)1,035 → (05말)1,012 → (06말)930 → (07.6.15)929

- 다만, 원/엔 환율은 금년에도 755원대까지 하락세를 지속

\* 원/100엔 : (03말)1,115 → (04말)1,010 → (05말)859 → (06말)783 → (07.6.15)755

- 이는 저금리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등으로 엔화가 달러화 등 다른 통화에 대해 상대적 약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

<주요 국가별 통화절상률(달러대비 %, 기말환율, 서울[15시] 종가)>

	한국	일본	유로	대만	싱가폴	태국	중국
07년중(6.15까지)	0.1	△3.5	1.5	△1.3	△0.3	9.7	2.6
'06년중	8.8	△0.7	10.8	0.7	8.4	14.9	3.1

### □ 향후 대응방향

- 해외투자 활성화 등 지속적인 외환수급 균형화 노력을 통하여 환율이 거시경제 상황과 괴리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 강화

- 환율동향 점검을 강화하면서 투기적 요인 등으로 원화가 과도하게 절상되는 경우 단기 안정화 조치를 하고

- 환위험 관리 등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 추진

## 6. 국내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

### □ 추진배경

- 외환위기 이후 정체되었던 금융기관 해외진출이 최근 확대되고 있으나,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음
- 선진 금융기관에 비해 규모·전문성이 미흡하고, 현지화 경영이 부족하며, 특정지역 쏠림현상(Herd Behavior) 심화
  - \* 06년말 점포수 기준으로 아시아 지역에 은행 60%, 증권 61%, 보험 59%가 집중

### □ 추진방향

- 정부는 금융기관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유도를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('07.4.25)
  - ① 해외진출 관련 국내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
    - \* 금융지주회사 및 PEF를 통한 해외진출, 해외점포 개설 신고 수리
  - ② 금융기관 해외진출 지원 시스템 구축
    - \* 금융기관 해외진출전략위원회, 금융중심지지원센터
  - ③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
    - \* 금융기관 차원의 리스크관리 체제 마련, 금융감독시스템 정비
  - ④ 금융분야 경제외교 역량 강화
    - \* 금융분야 해외진출 장벽보고서 작성, FTA 협상 등 계기 진출장벽 해소

### □ 향후 추진일정

- 국내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조속 개정
  - \* 금융지주회사법,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, 보험업법, 외국환거래규정 등
-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립('08.1)을 위해 예산·전문인력 확보
- 對중국 금융분야 장벽보고서 작성('07년중)
  - 이후 베트남, 인도 등 주요 신흥개발국으로 대상을 확대

## 7.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추진

### □ 추진배경

- IT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인적회사의 창업·운용의 활성화 및 기업과세의 선진화를 위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필요

\* 외국의 도입사례 : 미국, 영국, 독일, 프랑스, 호주, 캐나다 등

### □ 추진방향

#### ○ 적용대상

- 인적회사적 성격이 있는 합명회사·합자회사 및 각종 조합\*

\* 상법이 개정되어 유한책임회사 및 합자조합 형태의 기업이 도입되는 경우 이를 포함

#### ○ 과세방식

-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, 그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해소

### □ 향후 추진일정

#### ○ '07. 3~5월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방안 마련

- 관련부처, 학계, 업계 등 관계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T/F 구성·운영

#### ○ '07. 6.19 공청회 개최 (주관 : 조세연구원)

- T/F 논의를 통해 마련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수렴

#### ○ '07. 9월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 제출

## 8. 지역특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

### □ 추진배경

- 지정된 특구\*를 평가하여 특구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함

\* '07.6월 현재까지 전국에 총 80개 지역특구를 지정

### □ 추진방향

- 현재 운영중인 특구에 대해 객관적·공정한 평가를 실시  
(금년도 58개 특구를 대상)

-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와 현장 점검을 병행

- 평가 결과를 지자체에 피드백하여 특구운영이 내실화 되도록 지원

- 우수특구에 대하여는 예산인센티브(포상금10억)를 지급하고 모범사례(Best Practice)가 확산되도록 홍보

- 부진특구에 대하여는 특구계획 변경권고, 특구해제 등의 보완조치

\* 지난해 처음 24개 특구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 당초계획대로 정상 추진중 : (우수:7개, 보통:15개, 부진:2개)

### □ 향후 추진일정

- '07. 8월까지 서면평가·현장조사를 종료

- '07. 10월중 우수특구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